

피플 인사이드 작가 유시민이 오랜만에 내놓은 신간 『역사의 역사』는 고대부터 최근까지의 역사서와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역사를 탐문한다. 이 책은 저자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오랫동안 가져온 질문의 답이자 지적 과제의 답이다. 작가 유시민이 말하는 역사의 매력을 들어보자. 글=엄지혜 / 사진=신화섭

유시민의 역사 르포르타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역사의 역사'를 여행하는 패키지 투어

『역사의 역사』는 왜 썼나?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역사서 중 하나가 에드워드 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다. 내가 대학생 때 읽은 책이니 무려 50년 가까이 꾸준히 읽혔는데, 유럽사를 토대로 한 책이라 우리가 읽기엔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맞는 책을 쓰고자 했다. 내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가 무엇인가'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 '역사가들이 본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역사책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발생사를 먼저 짚은 이유는?

역사를 이해하려면 발생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최초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책부터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한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실제 역사가들이 서술한 역사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를 따라가 보는 일이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인 것 같았다.

처음 가제도 '역사의 역사'였나?

그렇다. 역사서에 관한 책을 쓰려니 나도 책을 다시 읽어야 했다. 역사가 입장에서 역사책을 바라보고, 역사가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책을 썼는지에 주목했다. 역사책 자체에 대한 상세한 소개나 비평보다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가들이 왜 역사책을 썼나, 왜 하필 그런 대상을, 그 사건을 썼을까'에 감정이입 했다.

책의 타이틀이 '역사로 남은 역사가와 역사서를 탐사한 지식 르포르타주'다. 이것 역시 유시민이 바라본 역사서로 읽힐 텐데?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둔 부분은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이 감을 잡길 바랐다.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데 머물지 않고, 내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 새롭게 느낀 것, 알고는 있었지만 중요한지는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해 썼다. 역사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서술이 아니다. 저자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살펴 읽어야 한다. 이 감정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다.

에필로그 제목이 '서사의 힘'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역사의 역사'를 여행하는 패키지 투어다.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 투어를 다녀와 본 적 있나?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닌다. 크게 여행 준비를 하지 않고 따라가도 도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역사의 역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책이다. 소소하고 자잘한 재미가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책일 수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어떤 유용성을 갖는 책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책도 많지 않나?

많다. 그런 책들은 읽기도 힘들고 공감도 되지 않아 어렵다. 책에도 이런 감상을 솔직하게 썼다. 어떤 책은 굉장히 훌륭하고 공감도 크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다. 도시로 치면 정확한 지도도 안내문도 없고 교통마저 매우 불편한 거다. 그런 책들도 있지만 분명 나에게 맞는 역사서는 있다. 『역사의 역사』를 읽다가 그렇게 느끼는 책이 있으면 긴 시간을 두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감정을 전달하는 역사서라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책에 소개한 역사서가 18권이다. 역사서를 좀 더 쉽게 소개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이라기보다 어떤 주안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많이 느낀 점은 역사책을 쓴 사람도 '사람'이라는 점이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사마천 등 그 옛날 2000년, 2500년 전 역사가들도 정말 똑같더라. 그들은 글을 파피루스에,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쓸 뿐 크게 다른 게 없다. 모두 '감정' 있는 사람이 쓴 책이다.

역사가들도 어떤 감정, 욕망으로 책을 썼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들도 인간적인 욕망이나 소망, 감정을 갖고 역사책을 썼다. 평소 자주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감정을 눈여겨보면 나와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감정들이 역사책 속에도 있다. 직접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어떤 장면을 묘사한 대목을 보고 있으면 내가 느꼈던 수많은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들이 똑같이 살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초기의 역사가들은 자기 존재를 남기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이들이 역사에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욕망 때문이 아닌 '작업의 탁월성에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들이 역사 서술을 왜 했을까? 잘 따져보면 자기 욕망, 갈망을 충족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사마천의 저작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 혁명의 보물창고이자 결국은 평범한 얘기들인데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꼭 가치가 있거나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한다. 사마천이 묘사한 인간 군상을 보면 권력, 서열, 관계,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현대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있지만,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면 소소한 권력 관계가 엄청 많다. 회사로 따지면 거래처도 있을 것이고 팀장, 사장, 고객도 있을 텐데 다 권력 관계다. 내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대도 있다. 사마천의 저작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권력관계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갑질을 할 수 없다.

역사서를 통해 갑을 관계를 고민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역사서를 꼭 읽어야겠다.

『사기』를 읽고 나면 내가 권력관계에서 갑의 이미지에 있을 때 그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많이 느끼게 된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게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권력관계에 대처하는 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기 열전』을 경영자들이 많이 읽는다. 또 읽어야만 한다.

'감정이 들어간 역사서' 생각해 보지 못한 정의다.

많은 역사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거만한 사람도, 사마천 같이 자애로운 사람도 있었다.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역사가들의 성격이 느껴진다. 그 성격이 반영돼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학문이 아니다. 물론 과학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완성된 형태의 역사는 문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서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 감정을 전달하는 역사서라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영국의 사학자 토인비가 "위대한 역사가는 위대한 예술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토인비 역시 굉장히 많은 역사책을 읽고 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거장의 말은 정말 허투루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다(웃음).

유시민의 책이라서 이 책을 볼 독자가 많을 거라 예상한다. 어떤가?

근 3년간 강연을 다니지 않았지만, 가끔 무서운 독자를 만난다. "유시민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하는 분들이다. 정말 무섭다. 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들에서 중복되는 이야기, 과거와 달라진 나의 시각.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진다. 그래서 책을 모두 읽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책을 읽는 분들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인문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관심이 높은 분들도 있다. 어떤 독자들은 자기 계발 측면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SNS나 블로그를 보면 각자 좋게 읽은 책들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독자들이 내게 뭘 원하는지 생각하면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책을 계속 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계속 써야겠구나 싶다. 굉장히 감사하다.

『역사의 역사』를 읽고 나면, 내게 맞는 역사책 한 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로서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바라는 바다. 이 책은 이미 역사에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읽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사책을 읽는 방법이 궁금했던 독자라면 흥미롭게 읽어 주실 것 같다. 모든 역사책이 그렇지만 이 책 역시 저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으면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거라 생각한다.